

# 순천만 습지의 미래

김준선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 순천만의 하루, 순천만의 사계

오랫동안 순천만은 지역 주민들을 제외하면 많은 사람에게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었다. 필자도 1970년 초반에 자전거를 타고 대대포구에 가 본 기억이 있지만 현재처럼 광활한 갈대밭이나 철새들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설사 보았더라도 관심밖이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순천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였기에 순천에 살면서도 순천만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대대포구의 장어구이와 짱뚱어탕을 먹으러 순천만을 찾곤 했는데 그때는 벌써 자연을 보는 눈이 달랐기에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1996년 순천만과 접한 동천하류의 하도 정비사업이 구체화되어 이를 반대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일련의 연구 조사를 수행한 결과 순천만은 철새의 보금자리로서 또한 수질정화장치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후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으로 순천시민에게 다가온 것이다.

순천만은 참 매력적인 곳이다. 순천만의 보전과 브랜드화를 위해 열심인 순천시 문화관광과 최 덕림 과장은 일전에 순천만을 다 보려면 백 번은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순천만은 무한한 생태적 잠재성을 지닌 천혜의 자연자원인 것이다. 순천 가까운 곳에 지리산 8경, 진주 8경이 있다면 분명 순천에는 순천만 8경이 있을 법 하다.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하여 순천만과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40만평 드넓은 갈대밭은 계절에 따라 연두에서 초록을 거쳐 갈색으로 물든다. 새벽녘 바다에서 피어나는 안개는 적군들처럼 마을을 둘러싸며 소설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으로 태어났다. 해질녘 용상전망대에 오르면 붉게 물든 서쪽 하늘을 배경 삼아 들어난 S형 수로가 감탄을 자아낸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갯벌위로 갑자기 펼쳐

뛰어 오르는 짱뚱어는 영화 괴물은 닮았다. 여름동안 짱뚱어를 하기 위해 갯벌에서 나와 좌우 집게발을 흔들며 암컷을 찾는 수컷들의 군무는 가히 세계적 수준이다. 가을에 접어들면 일곱 번 색이 변하는 칠면초가 무리를 지어 갈대사이로 붉은 자태를 자랑한다. 한겨울, 탐사선을 타고 순천만으로 나가면 진객 흑두루미의 고고한 모습이 태고의 자연을 연출한다. 아직 순천만의 만월을 보지 못하였지만 갈대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의 속삭임은 틀림없이 또 하나의 매력일 것이다.

## 순천만 갯벌생태계와 문화의 보전

순천만 갯벌은 남해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가 순천만에 이르러 세력이 약화되고 육지의 동천, 이사천, 해룡천이 순천만으로 흘러들면서 기수지역에서 토사의 퇴적이 일어나 형성된 곳이다. 드넓은 갯벌과 갈대군락 등의 염습지는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를 이루고 있다. 갈대, 칠면초, 나문재 등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프랑크톤과 저서규조류는 갯벌생태계의 생산자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밤게, 농게, 고동류, 갯지렁이류 등의 저서무척추동물과 짱뚱어, 송어 등의 어류와 흑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이 소비자로서 서식하고 있다. 갯벌에는 또한 수많은 분해미생물이 살면서 생물 파편 잔재인 detritus를 만들어 갯벌먹이연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순천만에서는 오랫동안 고유의 생활문화를 지켜 왔다. 갯벌은 꼬막을 키운다. 우리나라 전체 꼬막의 약 70%는 순천만 지역에서 생산된다. 순천만 인근에서는 대부분 어선을 이용해 꼬막을 채취하지만 동네 아낙들이 뺨배를 타고 나가 잡은 꼬막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이렇듯 아낙들이 뺨배를 타고 나가 꼬

막을 채취하는 것은 순천만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다. 또 하나의 독특한 어업행위는 짱뚱어 낚시이다. 짱뚱어는 망둥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순천만에서 문안반도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에서 서식하며 수질오염에 민감한 환경오염 지표종이다. 짱뚱어는 동작이 매우 빠르지만 낚시로 잡는다. 숙련된 짱뚱어 낚시꾼들은 긴 낚싯줄로 짱뚱어를 향해 낚싯바늘을 정확히 던져 채 올려 잡는데 그 모습이 가히 신기에 가깝다. 꼬막 빨배나 짱뚱어 낚시는 순천만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삶의 문화유산이다.

순천만을 보전하는데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는 후손들에게까지 전승되어야 하며 꼬막 빨배와 짱뚱어 낚시의 모습은 순천만 갯벌과 함께 보전해야 할 자산인 것이다.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역시 도모해야 할 명제이다. 1999년 순천시의 의뢰로 순천대 지역개발연구소가 산정한 순천만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24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편익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순천만은 분명 가치가 대단히 높은 자연생태계를 지니고 있기에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주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스며들어 있다. 순천만과 주민과 주민의 삶이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고유생태계와 문화를 보전하는 것이다.

## 생태문화관광지로의 도약



그림 1. 갯벌에서 꼬막을 잡고 돌아오는 아낙네의 모습

순천만이 오랜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후 2002년에는 국토해양부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에는 랍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는데 연안습지로는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2006년에 한국관광공사는 순천만을 국내 최우수 경관 감상형 관광지로 선정했다. 현재는 순천만을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으로의 지정도 거론되고 있다.

이제 순천만을 찾는 탐방객의 숫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7년에 순천만을 방문한 탐방객은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 순천시의 의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탐방객의 71%가 순천만 방문 목적을 자연생태계 및 경관감상으로 답변하였으며 37.7%가 방문전 기대 활동으로 자연경관감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불편사항으로 휴게실, 편의시설, 전망시설 부족을 지적하였고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시하였다. 순천만은 4계절에 걸쳐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생태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더욱이 올해 경남에서 개최되는 랍사르 총회와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 박람회는 순천만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생태문화관광이 있다. 현재 순천만을 찾는 탐방객은 겨우 자연생태관을 구경하고 갈대데크를 걷거나 내친 김에 용산 전망대에 올라 순천만을 조망하는 정도로 탐방을 마친다. 따라서 주말이나 가을 성수기에 탐방객이 편중되어 비생태적 이용패턴을 보이며 이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이 위협받고 순천만 주변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많은 탐방객의 내방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부족하다. 순천만에서 생태문화관광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생태관광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바람은 높아질 것이다.

생태문화관광에 있어 해설은 매우 중요하다. 해설을 통하여 이해를, 이해를 통하여 감상을, 감상을 통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탐방경험에 가치를 부가하는 교육행위이다. 그동안 순천만에서는 자연해설사들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이미 그린순천 21 협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연해설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순천대학교 자연환경해설 교육센터에서는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300명 이상의 자연해설사를 배출하여 인적 자원은 풍부한 편이다. 특히 2007년 순천만 갈대 축제에서는 60명의 자연해설사를 교육



그림 2. 창산마을 이장님이 순천만 갯벌과 빨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켜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탐방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순천만이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연해설사에 대한 심화교육이 이루어진 후 자연해설사의 상설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는 이미 올해 개최되는 람사총회에 참석하는 외국인의 순천만 방문을 대비하여 외국어 자연해설가

를 양성하려는 계획을 이미 건의하였으며 이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설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탐방객과 해설사에도 불구하고 해설프로그램은 미약한 실정이다. 탐방시간에 따라, 탐방계절에 따라, 탐방생태계에 따라, 탐방객의 연령에 따라 해설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제공될 때 순천만 보전의 토대가 굳건해지는 것이며 순천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학술연구의 장

순천만은 바다와 갯벌을 중심으로 농경지와 야산이 위치하고 동천과 이사천이 흘러들어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여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순천만에서 관찰된 조류에는 총 37과 86속 158종으로 여름철새 37종, 겨울철새 45종, 나그네새 45종, 텃새는 30종이었다. 그중에서 천연기념물은 199호 황새, 228호 흑두루미, 205호 저어새 등 모두 15종이었고 특히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Red Data 목록에 해당하는 조류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가창오리, 재두루미, 흰목물떼새, 넓적부리도요, 쇠청다리도요사촌, 큰부리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12종이었다. 또한 람사협약에 해당하는 종으로는 15종,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부속서 I, II에 등재된 종은 17종이었다. 최근 순천만에서 관찰된 천연기념물은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2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에 이루어진 순천만의 하계 식물상에 의하면 총 36과 92속 116종의 식물이 생육하였으며 갯벌지역의 우점종은 갈대이며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니문재, 통통마디, 칠면초, 해홍나물 등의 염생식물이 국지적 우점종으로 생육하였다. 그러나 외래식물인 달맞이꽃, 망초, 미국미역취, 돼지풀 등이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하는 둔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갯벌과 갈대와 철새가 공존하는 순천만은 앞으로 중요한 학술연구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미 1999년 흑두루미의 생태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흑두루미 도래지로서의 순천만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2004년 해양수산부는 순천만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순천만 일대 28km<sup>2</sup>를 연안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순천시는 순천만의 체계적인 생태 보전과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비지터 센터를 완공했다. 2007년에만 해도 3월에 순천만 생태계 국제화 전략마련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5월에는 4일동안 연안습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다. 10월에는 흑두루미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흑두루미 월동지로서의 순천만의 가치를 평가하고 순천만 미래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올해 2월에는 순천만



그림 3. 2008 동아시아 청소년 두루미캠프

에서 2008 동아시아 청소년 두루미 캠프가 열렸고 이를 계기로 올해 여름 러시아에서 진행될 국제두루미환경캠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류 및 활동사업을 할 예정이다.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순천만

순천만은 세계적인 자연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순천만에서 생태탐방활동을 하는 관광객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없는 순천만의 보전은 의미가 없다. 오랫동안 순천만 주변에는 대대포구를 비롯하여 화포, 와온 등지에 많은 부락이 형성되어 농업과 수산업에 의지하여 살아왔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생태공원이 조성되었고 순천만 탐사선이 운행되는 등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초기에 주민들은 순천만의 보전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순천만의 보전에 있어 주민참여는 거버넌스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버넌스의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사회단체, NGO, 지역 주민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한때 순천만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변변한 활동없이 흐지부지되었다. 2007년에는 28명으로 구성된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생태위원회는 순천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계획을 보고 받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갈대축제를 주관하여 생태축제로서의 가



그림 4. 2007년 3월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순천시가 함께한 간담회

능성을 열었고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방안에 관한 용역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태위원회에 지역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교회목회자, 일반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와 주민의 민원 등을 전달하였다. 비록 거버넌스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지만 장차 생태위원회는 거버넌스의 실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순천만의 보전과 개발행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민의 자체적인 활동을 간과할 수 없다. 도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순천만 보전에 매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순천만 보전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순천의 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철새도래 상황을 파악하고 서식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많은 사회봉사단체들은 겨울동안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모이주기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순천만 발전에 지역주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순천만 브랜드화 및 미래비전

순천시는 순천만을 브랜드화하여 전남 최고의 생태관광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국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도약하고 중국에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시행중이다. 순천만 브랜드화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성 : 세계 유일의 순천만
  2. 비가역성 : 보전적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추구
  3. 고부가가치 : IT, 생태교육,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효과 창출
  4. 브랜드화 : 국립공원 및 자연유산 등록 추진
  5. 자원화/계획화 : 보존 및 복원, 상품화 및 이벤트화
- 그동안 순천시는 순천만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제 2회 공간문화 대상 누리섬터상, 전국습지경연대회 최우수상, 스토리텔링 대회 우수상, 제2회 살기좋은 지역 자원 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수상 이외에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였으며, 자연생태관 주변에 순천만을 대표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시민천문대를 건립하여 또 다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2008년에 이루어질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06,719m<sup>2</sup>에 편익시설, 휴게시설, 관찰장, 탐조선, 선착장 등을 설치한다.
- 125,400m<sup>2</sup>의 부지에 내륙습지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 순천만 환경생태관찰 시설등을 확충하는데 보행데크 6.6km, 관찰대 5개소, 수목원 5곳을 조성한다.
- 동천생태습지 116,700m<sup>2</sup>을 복원한다.
- 주차장 증의 순천만 관광기반 공유재산으로서 6개 지구 297,500m<sup>2</sup>을 취득한다.
- 기타 용산 전담대의 리모델링을 통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부족한 위생시설 등을 확충한다.

순천시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최근 보고된 ‘순천만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의하면 순천만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이듯이 현재 순천만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순천만을 현재보다 발전시키는 기회 중에서도 2008 람사르 총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매우 중요하다. 2008 람사르 총회는 경남 창원에서 열리

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순천만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해설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순천만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만큼 박람회 주제관과 순천만을 연계하여 연안생태계의 보전과 친환경적 연안개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두 가지 행사에 대한 대비는 순천만의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순천시에서는 순천만과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전이구역(Transition zone), 완충구역(Buffer zone), 생태보호구역(Eco-reserved zone)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 생태보호구역

일반적으로 순천만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갯벌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며 폐염전을 갯벌로 복원하고, 간척농지에 경관농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관감상을 위한 전망대 등이 설치될 것이

표 1. 순천만의 발전 방향

구분	실태	과제도출
강점	4계절 생태적, 심미적 가치 다양한 에메니티 자원 보전적 틀 지자체 환경보전 의식 중앙정부관심유도	-계절별, 시간대별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부가가치창출(농지->경관농업(무농협약))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추진->순천만 위상제고 -순천만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환경부, 농림부, 문광부 사업과 연계
기회	2008 람사르 총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생태관광 수요 증가 넓은 간척농지 동천과 이사천	-순천만 생태적 가치 홍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주제와 연계 -질 높은 생태프로그램 개발->고부가가치 실현 -대체습지조성을 통한 철새이동경로의 중심지 -순천시 전체를 연결하는 생태축
약점	비생태적 이용패턴 계절별,시간대별 이용 편중 순천만 비전 및 목표 부재 지역주민 참여 미흡	-기능구획을 통한 보전과 이용의 명확한 구분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분산 -새로운 비전과 위상 정립 -소득원 창출, 고용기회제공
위협	급속한 자연생태환경변화 주변 개발압력 상승 생태관 주변 행사의 고착화	-체계적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및 조사 -기능구획에 맞는 시설 도입 유도 -생태적 관문을 타 지역으로 이동

다. 장기적으로 자연생태관은 연구의 장소로 이용하고 비지터 센터는 외곽으로 이전하여 탐방객의 혼잡으로 인한 생태계교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2. 완충구역

자연생태관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을 포함하며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완충구역의 중심부이다. 이 구역에는 무논습지, 자연식생정화습지, 복합문화관, 경관농업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무논은 물이 늘 있거나 쉽게 물을 댈 수 있는 논을 말한다. 농민과의 협약을 통해 무논을 순천만 상부 지역에 조성하면 이는 많은 조류의 습지로 이용되고 탐방객들에게 쉽게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연식생정화습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2차 처리수를 유입시켜 흐르게 함으로써 식생에 의하여 정화된 최종 방류수를 순천만으로 흘려 보내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룡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조류, 곤충류, 수생식물, 양서류 등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며 탐사선의 운행도 고려중이다. 아무튼 완충구역은 순천만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을 효율화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3. 전이구역

전이구역은 동천의 하류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순천시의 도심지역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의 하나이다. 동천의 일부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건립하여 탐방객의 순천만 방문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자연생태관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여 비지터 센터를 이 구역에 건립하여 탐방객들이 순천만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지터 센터에서는 생태탐방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순천만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테마별 스토리보드, 생태버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구역의 구분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은 순천만 생태계에 가해지는 이용압력을 분산시키고 또 다른 담수생태계를 확대하여 이용기회를 늘리는 길이다. 모조록 이러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 순천만의 미래

미래의 순천만의 위상은 무엇일까? 순천만이 유네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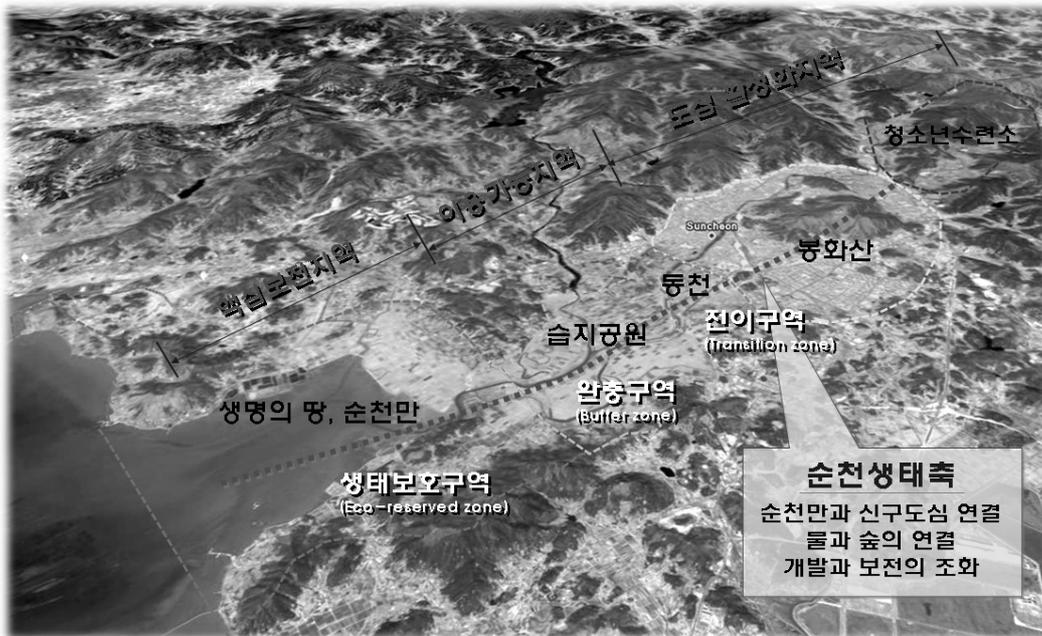


그림 5. 순천만 이용계획



그림 6. 갈대테크 위를 달리는 아이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고 국내 최고의 생태문화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다. 순천만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브랜드화될 것이다.

잘 보전된 순천만은 갯벌생태계 학술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연생태관 이름 그대로 순천만의 생태문화환경을 연구하는 장소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순천만을 주시할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순천만을 보호하는 것도 연구와 함께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순천만은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순천만에서 이루어진 생태관광활동은 감상형

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으로 체험위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꼭 갯벌에서가 아니더라도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계와 지역문화를 자원으로 하여 감상과 체험을 병행하면서 순천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 해설이 있어서 더욱 즐거운 순천만은 지난 10여년 동안 순천만의 지킴이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는 등불이 아니겠는가.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이 순천만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다. 결국 순천만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대표지역이 될 것이다.

많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순천만의 활용은 지속가능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순천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수용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순천만의 생태계가 살아 있지 못하면 순천만 브랜드사업도 생태문화관광개발사업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지만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하여 순천만은 순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할 것이다.